

문서번호 : 17-5-사무-1
수 신 : 제 언론사
발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참여연대
제 목 : [민변·참여연대 공동][보도자료]'법관 블랙리스트'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
전송일자 : 2017. 5. 2.(화)
전송매수 : 총 2 매

[보도자료]

'법관 블랙리스트'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

1. 취지와 목적

-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(위원장 이 인복 전 대법관, 이하 조사위)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,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 및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사건 무마와 꼬리자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음.
- 이에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하고, 해명 한마디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.

2. 개요

- 행사 제목 : '법관 블랙리스트'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
- 일시와 장소 : 2017년 5월 2일(화)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앞
- 공동주최 : 참여연대·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- 행사 진행 순서
 - 발언 1 :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한계점과 재조사의 필요성 / 강문대 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)
 - 발언 2 : 제왕적 대법원장의 실태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/ 한상희 (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,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- 기자회견문 낭독

/ 임지봉 (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,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3.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에 전면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.

■ 붙임자료 1. <기자회견문> (p3)

■ 붙임자료 2. <'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'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> (p6)

2017년 5월 2일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참여연대